

‘디지털 별자리’ 하나로 이어지다

지맵, 광주비엔날레 기념 국제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 7월 9일까지 프랑스·포르투갈·조지아 3개 도시 작가 선정...파빌리온 작품도 소개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이 처음으로 국제 공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G.MAP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기념 국제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 ‘디지털 별자리(Digital Constellation)’를 오는 7월9일까지 상영한다.

‘디지털 별자리’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21개국의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전문 기관으로부터 기관 추천 작가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앙기엔레벵(프랑스), 브라가(포르투갈), 트빌리시(조지아) 총 3개 도시의 지역 미디어아트 작가들을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광주비엔날레 이스라엘 파빌리온 참여 작가와 광주(한국)의 2023년 G.MAP 미디어아트 기획전 참여 작가들도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

여하면서 앙기엔레벵(프랑스), 브라가(포르투갈), 트빌리시(조지아), CDA Holon(이스라엘), 광주(한국) 등 5개 도시(국가)의 미디어 작품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외벽 미디어 월에서 국제적이며 새로운 미디어 파사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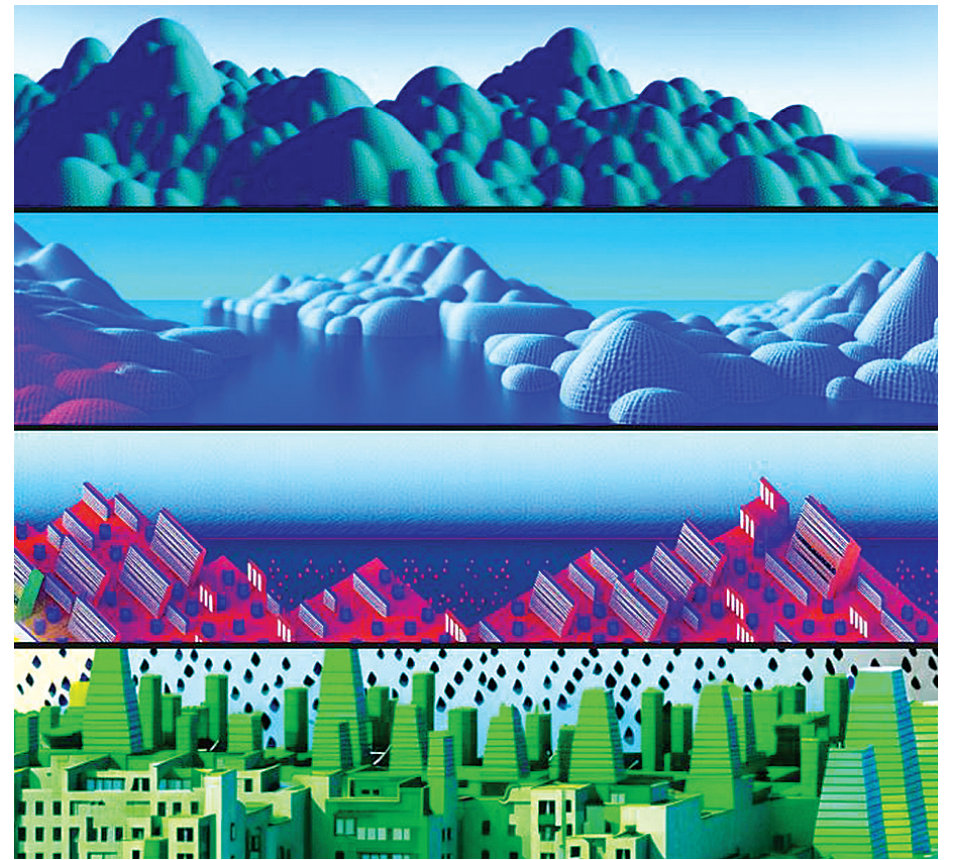
‘디지털 별자리(Digital Constellation)’는 서로 다른 5개국 작가들이 자신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도시에서 각자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동시에 서로를 연결함으로써 별자리라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이어지고 구축된다는 점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번 미디어 파사드 작품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영감을 받고 자란 작가들이 가상의 꿈의 공간, 버려진 오래된 폐허, 삶과 죽

음 등 각 도시의 고유한 지역성을 여러 양태로 보여준다. 동시에 다른 색깔을 띤 도시들이 미디어아트라는 하나의 장르로 공존하고 연결되어 전 세계의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제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라져갈 앙기엔레벵의 몽모리시 숲의 모습을 디지털로 변환해 영원의 숲으로 간직하는 로맹 라리에르(앙기엔레벵), AI를 이용한 가상 도시의 변화 모습을 인간의 신진대사 활동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인류가 지구를 침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고찰한 페데르 데 카스트로(브라가), 3000년 전 고대 유물의 모습을 3D의 모습으로 재현하여 숨겨져 있던 여성의 서사를 복원하는 루스 파티르(이스라엘) 등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G.MAP 외벽 미디어 월을 통해 오전 7시-10시, 오후 1시, 오후 5시-10시 총 3부로(1일 9시간) 상영되는 작품은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기존(1일 7시간) 상영시간보다 2시간 연장해 상영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페데르 데 카스트로 작 'Erosive Metabolism'

에르노의 글쓰기, 광주비엔날레, 삶과 예술...강좌로 만나요

광주문화재단 인문학 강좌, 20일부터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아니 에르노, 광주비엔날레, 패션, 생애 다양한 예술인과 함께하는 풍성한 이야기로 사랑받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의 2023년 인문학 강좌가 시작된다.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상반기 강좌는 총 7개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아니 에르노의 삶과 글쓰기(20·21일·이화경 작가) ▲생태 감수성의 세계(27·28일·김성호 작가) ▲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계’ (5월18·19일·김지연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문학자가 생각하는 ‘멋’ (5월25·26일·문광자 드림 디자이너) ▲삶과 예술(6월22·23일·정선휘 작가) ▲생태와 평화 어디서 오는가? (6월29·30일·변택주 작가) ▲기획프로

그램(김주용 축조바람 대표) 등 총 13회 강연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강좌로 이화경 작가의 ‘아니 에르노의 삶과 글쓰기’가 진행된다.

202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는 사회적인 공적 영역과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솔직히 풀어낸 글쓰기로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가로 유명하다.

이번 강좌는 전대, 언어, 계급적 측면에서 접해온 불균형으로 점철된 삶을 다각도에서 지속적으로 고찰해온 ‘아니 에르노’의 문학적 태도와 삶의 여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화경 작가는 소설, 에세이, 동화를 쓰고 번역작업도 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광주시립



이화경 작가

미술관, 각 기관 연수원 등에서 인문학강연을 했다. ‘수확’ ‘탐욕’, ‘그림자 개’, ‘버지니아 울프와 밤을 새다’, ‘열애를 읽는다’, ‘윗소리’ 등을 펴냈다.

20일에는 1강 ‘계급을 탈주한 변절자의 속죄적 글쓰기’, 21일에는 2강 ‘사적, 공적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칼같은 글쓰기’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수강인원은 15명 내외이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신청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방문접수. 문의 062-670-796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흥순 작 '백년여관'

임흥순·양효실 아티스트 토크

전남도립미술관, 22일 ‘시의 정원’ 연계 행사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의 정원: Poetic Paradise’ (사진)연계 행사로 전시 참여 작가 임흥순과 미학자 양효실의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한다.

‘시의 정원: Poetic Paradise’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해 전남의 시와 소설과 동시대 현대미술의 만남을 도모한 전시다. 이번 전시에는 리밍웨이, 안유리, 이매리, 임흥순이 참여했다.

이번 토크는 리밍웨이와 이매리 작가에 이은 세 번째 행사로 여성학자이자 미술비평가 양효실이 함께한다.

임흥순은 한국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미술작가이자 영화감독으로, 이번 전시에서 완도출신 임철우의 소

설 ‘백년여관’에서 영감을 얻은 동명의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신작은 영상, 설치, 사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작업을 해오며 만났던 장애여성 공감 이진희 대표 등을 초대해 차와 함께 치유의 시간을 선물한다.

양효실은 여성학자이자 미술비평가로,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서 현대예술과 문화, 여성주의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미술비평가로도 활동 중이다.

작가와 대화는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현장 참여 또한 가능하다. 한편, 5월 말에는 안유리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가 예정되어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뮤지컬 ‘광주’, 초연부터 현재까지 과정 고스란히

5월 개막 앞두고 히스토리 영상 공개...오디션·쇼케이스·촬영현장 등

뮤지컬 ‘광주’의 제작 과정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사진)

뮤지컬 ‘광주’가 다가오는 5월, 빛고을시민문화관 개막에 앞서 초연부터 사연까지의 과정을 담은 히스토리 영상을 공개했다.

‘광주’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취지와 맞물려 있으며 특히 이번 영상은 역대 출연 배우들과 주요 스태프의 인터뷰를 더해 코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했다.

공개된 영상은 5·18민주화운동의 당시의 현장 사진, 그날의 희생자들이 잠든 국립5·18민주묘지를 잇는 분홍색 꽃잎을 오프닝에 배치한 점이 이채롭다. 80년 당시 벌어진 5·18민주화운동이 2023년 오늘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산 역사임을 상기시킨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

이어 2020년 초연(서울 홍익대 아트센터 대극장)을 비롯해 오디션부터 트레일러 촬영, 연습, 시초프로브 쇼케이스, 본공연은 물론 40주년 기획 특별전까지 약 10개월의 전 과정이 빠른 속도로 펼쳐지며 목직 한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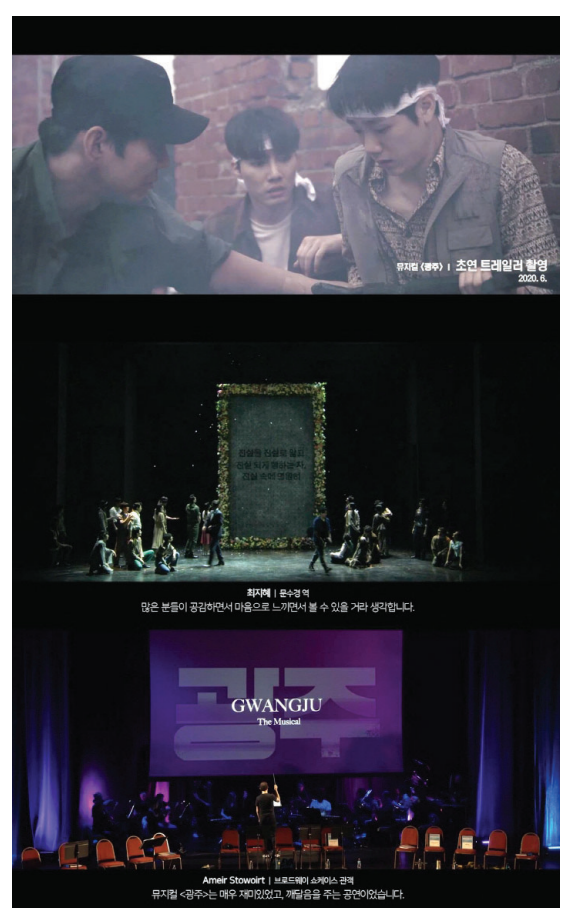
운을 선사한다.

또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2021년 4월, 재연(서울 LG아트센터) 트레일러의 촬영 현장과 함께 당시 출연 배우들의 인터뷰가 공개돼 가슴 뭉클했던 소감을 전달한다. 아울러 2022년 10월, 뉴욕 브로드웨이 쇼케이스 현장까지 이어지며 약 4년에 걸친 뮤지컬 ‘광주’의 대중화, 세계화의 과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

한편 대한민국의 대표 창작 뮤지컬로 자리매김한 뮤지컬 ‘광주’는 초연 이후 서울과 광주를 비롯해 총 6개 도시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일본 위성방송 TV 방영과 미국 브로드웨이 쇼케이스를 통해 해외 진출의 신호탄을 울린 바 있다.

1980년 5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소시민들의 뜨거운 외침은 ‘아시아의 레미제라블’이라 불리며 국경을 넘어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공연은 오는 5월 16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막을 올리며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을 예고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창작과비평’ 여름호 통권 200호...창간 57년만

계간지 ‘창작과비평’이 여름호로 통권 200호를 맞는다.

1966년 첫 호를 간행한 창작과비평은 1970-80년대 판매금지 처분, 강제 폐간, 출판사 등록 취소 등 어려움으로 절호가 생기면서 57년 만에 200호를 발간하게 됐다.

문학평론가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주도로 창간된 창작과비평은 문학적, 사상적 자유가 억압받던 독재 정권 시기에 진보적 사회 담론을 이끌었으며 도서출판 창비

의 모태가 됐다.

창비는 200호를 기념해 14일 공개 심포지엄 ‘대전환의 한국사회, 과제와 전략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개최했다.

특별호에서는 특집으로 언론, 정치, 정보기술(IT), 플랫폼노동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25년 뒤 한국 사회’ 모습을 전망한다. 미래를 주제로 한 시와 소설, 심포지엄 발제문도 열린다.

/연합뉴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